
국립중앙박물관 신석기시대 전시 변천 연구

양 성 혁*

목 차

I. 머리말

II. 시기별 신석기시대 전시 변천 현황

III. 국립중앙박물관 신석기시대 전시의 변화상
고찰

IV. 맺음말

* 국립중앙박물관

국문요약

국립중앙박물관은 1945년 개관 이래, 모두 6번에 걸쳐 이전을 하였다.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잦은 이전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이전할 때마다 전시 주제 및 구성 등 전시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전에 따른 전시 변화는 당대의 학문적 성과와 물질문화에 대한 인식 등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본 글은 국립중앙박물관 신석기시대 전시의 변천에 대한 연구로 전시의 변천 과정 속에서 당대의 신석기시대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 전달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석기시대 전시는 학계의 연구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전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는 일제가 구축한 금석병용기설을 극복하고 신석기시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 이후 학계의 연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신석기시대의 시작과 끝을 기원전 80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로 조정하였다. 전시 주제 및 구성에 있어서도 토기 중심의 지역별 비교 전시에서 벗어나 점차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초점을 맞춰 나갔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된 현재의 일반 대중은 기존 당대 학계의 연구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전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대중고고학에 주목하였다. 고고학 조사를 통해 획득된 유물이 대중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박물관 전시실이라는 점에서 박물관 전시실은 고고학과 대중의 최접점이다. 고고학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고고학의 저변 확대를 모색한다면, 고고학 자료가 일반 대중과 직접 만나는 박물관이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 대중이 전시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에 대한 ‘니즈(Needs)’ 분석과 최근의 발달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이 융합된 첨단 전시기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Ⅰ 주제어 Ⅰ

신석기시대 전시, 금석병용기설, 대중고고학,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I.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¹⁾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은 구석기시대부터 대한제국기까지 다양한 물질문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립중앙박물관은 해방되던 해, 1945년 12월 3일 역사적인 개관을 하고 나서 여러 번 이전을 하였다. 2005년 현재 자리에 정착하기까지 모두 6곳을 떠돌아다닌 셈인데, 2년 남짓의 남산 시기(1954~1955)를 제외하고, 한 곳에 평균 약 12년 정도 머물러 있던 셈이다.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잦은 이전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이전할 때마다 전시 주제 및 구성 등 전시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전에 따른 전시 변화는 당대의 학문적 성과와 물질문화에 대한 인식 등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산업화와 함께 급격히 늘어난 발굴조사, 그에 따른 증가된 고고유물이 박물관의 새로운 전시품으로 적극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고고학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글은 국립중앙박물관 신석기시대 전시의 변천에 대한 연구로 전시의 변천 과정 속에서 당대의 신석기시대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 전달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에서 신석기시대 전시가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고민하고자 한다.

전시는 현장성이 강하다. 한번 열렸던 전시가 종료되면 도록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것은 사진 몇 장뿐인 경우가 많다. 요즘이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시 현장을 담아 놓을 수 있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시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도록 역시 국립중앙박물관만 해도 제대로 된 도록이 발간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당시의 전시 패넬이나 설명 카드 등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시 변천을 연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 그나마 전시 안내서와 전시 도록이 남아 있어 당시의 전시 상황에 대해 유추가 가능하다. 본 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발행한 전시 안내서와 전시 도록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이전에 따른 시기별 신석기시대 전시의 변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속에서 신석기시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전시 내용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5817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0조(설립과 운영)

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신석기시대 전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현재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자리 잡은 지도 14년이 되어 간다. 그 사이 각 전시실 개편이 적어도 한 번씩은 진행되었다. 신석기실 역시 2011년에 전시 개편이 진행되었으며, 2015년에는 신석기시대를 주제로 특별전도 개최되었다. 1947년 경복궁 수정전에 처음으로 선보인 신석기시대 전시품이 그 사이 어떻게 전시되었으며,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시기별 신석기시대 전시 변천 현황

1. 경복궁 1기(1945~1954)

1945년 12월 3일 국립박물관은 역사적인 개관을 하였으나, 신석기시대를 비롯해 선사시대에 대한 내용은 전시에 담지 못했다. 아리미스 교이치(有光敎一)가 자신의 회고에서 ‘건물은 이전의 총독부박물관 그대로였으며, 진열품도 같은 상태’라고 언급했듯이(有光敎一 1996: 15), 개관 당시 국립박물관은 삼국시대부터 유물을 진열 하였던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전시실 편성 체제를 그대로 활용했다. 일제 강점기에 일인 관학자들은 한반도 선사문화가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로 이어지는 보편적인 문화라기보다는 한반도는 대륙의 문화를 일본으로 전해주는 교량 역할만 할 뿐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부각하였다. 신생 독립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관한 국립박물관은 ‘왜색을 일소하고 면목을 일신한 준비 하에 진열관을 재개’(국립박물관 1947) 하였으나, 일제가 공고하게 구축해 놓은 이러한 학문체계를 극복하는데는 당시의 인력과 연구 역량에서 한계가 있었다.²⁾

국립박물관의 선사시대 전시는 1947년 6월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1946년 8월 경복궁 내 미군 막사 건설을 이유로 9개월간 휴관하였던 국립박물관은 1947년 6월 6일 재개관하였다. 이때 본관 외에도 경복궁의 전각인 수정전(修正殿)에서 한

2) 일제 강점기에 유럽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한홍수는 일인 관학자의 입장과는 달리, 유물사관에 입각해 한반도 석기문화가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한반도 선사시대 문화를 보편적 인류 발전과정에서 파악하였다(한홍수 1936). 그러나 해방 후 그는 월북하였고, 따라서 당시에는 한반도 선사문화의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거나 언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반도 선사시대 유물이 국립박물관 역사상 최초로 진열되었다. 원래 수정전에는 총독부박물관 시절부터 서역 유물(오타니 컬렉션)이 진열되고 있었으나, 이 유물들이 본관으로 이동 진열됨에 따라 수정전에는 선사시대 유물이 진열되게 되었다. 1947년 제작된 『국립박물관 본관안내』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의 ‘금석병용기설³⁾’ 입장에서 진열되었다.⁴⁾ 진열된 유물은 전시실 사진이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안내서 본문에 함경북도 석기시대 석기편과 토기편이 진열되었다고 언급된다는 점에서 1933년 요코야마 쇼사부로(横山將三郎)가 수습한 함북 경성 원수대 패총과 청진 농포리 유판 패총 출토품이 진열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석기편과 토기편을 출토 지역별로 구분하여 진열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아마도 1925년 을축년 홍수 때 수습된 암사동 유적 출토품도 함께 진열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당시 선사시대 진열은 우리나라 유물뿐만 아니라 중국 신석기시대 토기와 갑골문, 유럽의 구석기시대 석기 등을 함께 진열하여 여러 지역의 선사문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2. 남산 시기(1954~1955)

국립박물관이 국립민족박물관이 있던 남산 분관에 있던 시기는 1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기 국립박물관은 특별전을 개최하고, 학술조사 등의 전시와 연구

3) 원래 금석병용기는 청동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순동 중심의 동기와 석기가 함께 사용되던 시대를 일컫는다. 북부 유럽을 제외한 동부, 남부 유럽 거의 전역에 적용되며 신석기시대 말에서 청동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단계로 보고 있다. 석기-순동-청동기-철기시대의 발전단계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청동기시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철기시대로 들어간 곳도 있고, 또 청동과 철이 함께 사용되었던 곳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일인 관학자들이 김해 회현리 패총을 발굴한 뒤 금석병용기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과도적 의미가 아니라 석기와 청동기 나아가 철기까지 포괄하는 시기였다. 즉 한반도의 금석병용시대는 한반도의 석기시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의 석기시대는 그 안에서 돌과 청동, 철을 같이 썼던 시기가 된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한반도 선사시대가 파행적이고 정체되어 있었음을 강조하는 식민사관을 잘 드러낸 것이다.

4)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선사시대를 서술하고 있다.
‘수정전에는 선사시대의 유물을 진열하였다. 선사시대라면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금석병용시대, 청동시대를 포함하여 참으로 아득한 옛날 같고 또 과연 그렇지만 조선에서는 아직 구석기시대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신석기, 금석기뿐인데 석기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말기 경(서기전 3세기 전후)에 중국부터 이미 발달된 금속(청동, 철) 문화가 소개될 때까지 또 그 후에도 기술상, 재료상의 난점으로 낙랑문화가 한편에서 꽃 피고 있을 때까지 금속기와 함께 사용되고 있었으며, 조선의 석기에는 오랜 것도 있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사시대는 개념적 연대보다는 훨씬 시대가 떨어지는 것도 있다.’

역량을 쌓아갔다. 하지만 전시 공간이 협소하고 소개 유물과 전쟁으로 망실된 유물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시기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05b: 57). 이런 관계로 상설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석기시대를 포함한 선사시대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전시는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에 비춰 볼 때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덕수궁 시기(1955~1972)

이 시기의 국립박물관 상설전시는 1969년 덕수궁미술관 통합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덕수궁미술관 통합 이전의 상설전시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소개되었던 소장품이 1961년 경주 분관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시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1969년 덕수궁미술관 통합 이후에야 석조전 동관과 서관을 모두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전시가 충실했다(국립중앙박물관 2005b: 70).

덕수궁미술관 통합 이전의 국립박물관 전시실 배치와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통합 이전 1964년에 영문으로 발행된 『GUIDE BOOK』⁵⁾에 실린 내용을 통해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경계를 한사군 설치로 보았으며, 선사시대를 ‘neolithic’으로 통칭하였다. 1972년 판 국어, 영어, 일어로 구성된 도록에서는 ‘선사시대=신석기시대=neolithic’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청동기시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 ‘금석병용기’의 입장에서 진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록에서는 선사시대의 토기를 크게 3가지, 즉 빗살무늬토기와 민무늬토기, 홍도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철기문화의 시작과 함께 중국 대륙으로부터 파급된 토기로 원시신라토기(김해식토기)를 설정하였다. 빗살무늬토기는 주로 해안이나 강가에서 어로생활을 한 사람들이 사용한 것으로, 민무늬토기는 구릉이나 계곡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석기시대의 종말을 기원전 4~3세기 무렵으로 보았으며, 동북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기원후 1세기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았다(국립박물관 1964).⁶⁾

5) 1964년 초판이 발행된 국립박물관 최초의 도록이다. 이후 1968년에 제2판, 1970년에 제3판이 발행되었으며, 1972년에는 국문, 영문, 일문이 함께 수록된 제4판이 발행되었다. 1978년에 발행된 국립박물관 최초 국문 도록의 모본이다.

6) 선사문화 개설에서는 1964년 초판, 1968년 제2판, 1970년 제3판, 1972년 제4판 모두 ‘Prehistoric Period’를 ‘Neolithic Age’로 보고 있으나, 도록에 수록된 유물 설명의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유물의 시기가 ‘Neolithic Age’(초판)→‘Early metal period’(제2판)→

덕수궁미술관 통합 이후의 선사시대 유물은 동관 1층 제1실에 진열되었다. 현재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로 이어지는 선사시대를 여전히 석기시대로 통칭하였다. 유물의 진열은 남해안을 포함한 서해안식 토기문화와 동북해안식 토기문화로 구분하여 전시하였다. 그리고 석기시대의 개시 연대를 기원전 3000년 전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1963년에 조사된 춘천 교동 동굴 출토 유물은 두 문화가 접촉하여 생긴 혼합형 문화로 보았다(국립중앙박물관 2005b: 73).

이 시기의 석기시대 유물의 진열은 아직 일제 강점기의 ‘금속병용기설’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북한이 1955년 금탄리 유적 발굴조사에서 신석기시대 문화층과 청동기시대 문화층을 구분(김용간 1964)하여, 한반도 선사시대가 보편적 인류문화 발달 과정을 거친 것을 증명하였지만, 아직 국립박물관 전시에서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구분은 찾을 수 없다.⁷⁾ 이것은 아직 신석기시대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못했던 당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시기에 국립박물관의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1957년 서해 도서 패총 유적 조사를 시작으로 동삼동 패총(1969~1971), 시도 패총(1970), 암사동 유적(1971~1975)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한반도 신석기문화에 대한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면서, 이후 시기 전시에서 신석기문화와 청동기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4. 경복궁 2기(1972~1986)

이 시기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은 대체로 이전 체제를 유지하였다. 다만 유물을 나열한다는 ‘진열’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유물을 펼쳐서 보여준다는 ‘전시’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전시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진열실’이란 명칭을 전시실로 부르기 시작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05b: 136).

상설전시 제1실인 선사실은 모두 6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신석기시대-청동

‘Bronze Age’(제3판)로 바뀐 것으로 보아 도록의 본문을 크게 수정하지는 않았으나, 진열품의 시기에 대해서는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7) 이와 관련하여 김원룡은 이전까지 석기시대로 통칭되었던 선사시대를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로 나누고,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3000년 무렵으로 보았다(김원룡 1964). 그는 한반도 신석기문화를 함경북도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함경북도 지역의 빗살무늬토기가 퇴화된 형식이라는 점에서 시베리아 빗살무늬토기가 서해안으로 먼저 들어와 해안을 따라 동북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역시 일본인 학자의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기시대-초기철기시대 순으로 유물을 전시하였다. 이전(移轉) 개관 초기에는 구석기시대 유물을 전시하지 못하였으나, 1980년 이후 공주 석장리 유적과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구석기시대 석기를 확보하여 비록 한 장이나마 별도의 진열장을 마련하여 전시하였다. 이 시기 국립중앙박물관 선사실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더 이상 한반도 선사시대는 문화가 정체인 석기시대가 아니라 물질문화의 변화에 따라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로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1972년에 발간한 도록에 수록된 전시품의 시기를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들어서면 국립박물관 상설전시에서 금속병 용기설에 입각한 석기시대란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립중앙박물관 1972).⁸⁾ 신석기시대 전시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전 시기에는 빗살무늬토기문화를 서해안식과 동북해안식으로 구분했으나, 이 시기부터는 동북지방, 중부지방 및 서부지방, 남해안지방의 3개 지역군으로 나누기 시작하였다. 이는 덕수궁 시기부터 이루어진 신석기시대 유적 조사 결과를 전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암사동 유적과 동삼동 패총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국립중앙박물관 선사실의 대표적인 전시품이 되었다.

5. 경복궁 3기(1986~1996)

이 시기의 상설전시는 이전 시기의 3배가량 늘어난 공간에 전시가 이루어졌다. 전시실은 모두 22개로 이루어졌으며, 신석기시대 전시는 2층 선사실에서 이루어졌다. 선사실은 한반도 선사시대에 사용된 도구와 생업경제 등의 문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로 구분하여 전시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05b: 208).

신석기시대 전시 구성은 이전 시기와 큰 차이는 없었다. 빗살무늬토기문화를 중·서부지방, 남부지방, 동북지방으로 구분하여 전시하였다. 한편 단순히 유물 진열에서 벗어나 그동안의 발굴조사와 연구를 기초로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모형으

8)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구분하고는 있지만, 도록에 실린 우리나라 선사시대를 개설하는 글은 1964년에 발간된 영문도록인 『GUIDE BOOK』에 실린 내용을 번역한 수준으로 각 시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는 발굴조사 결과 물질문화상으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시대 개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로 재현해 놓아 전시에 생동감을 주었다. 특히 복원된 신석기시대 움집은 국립중앙박물관이 1971~1975년에 걸쳐 발굴조사한 암사동 유적의 움집 중 하나를 1/2로 축소해 놓은 것으로, 출입구의 반대쪽 지붕을 절개하여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 도록의 내용도 진일보하였다. 선사시대 토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선사시대를 소개했던 이전의 도록 내용과 다르게 ‘신석기 문화’라는 별도로 마련된 장에 신석기 문화를 개설하고 있다. 그동안 발굴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석기시대 생활상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토기와 석기, 골각기 등 신석기시대 유물과 오산리 유적, 동삼동 유적 등 주요 유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빗살무늬토기를 동북지방, 서북지방, 중·서부지방, 남부지방 등 4개의 지역군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특징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도록 신석기시대 서술의 기준이 되었다. 한편 신석기시대의 시작을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기원전 3000년 무렵으로 보았던 연대관에서 벗어나 기원전 5000년으로 올려보았다. 또한 신석기시대 종말을 기원전 4~3세기로 보았던 기존 연대관과는 달리 기원전 1000년 무렵으로 보았다(국립중앙박물관 1986).

6. 경복궁 4기(1996~2004)

이 시기의 고고 영역 상설전시 공간은 경복궁 3기보다 오히려 넓어졌다. 우리 문화의 참모습과 우수성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고자 외국 문화재 전시를 축소하고 고고 미술 분야의 유물 중심으로 개편하였기 때문이다. 신석기시대 전시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선사실에서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선사실 전시의 특징은 전시유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의 입체화를 시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디오라마로 연출하였고, 청동기 제작 과정 역시 작업공정의 순서를 이해하기 쉽게 연출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1986: 274).

신석기시대 전시 구성은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먼저 우리나라 신석기문화를 동북·강원지방, 남해안지방, 중서부지방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대표 유적 출토품 일괄, 즉 유물복합체 중심의 전시를 하고 있다. 지역별 문화를 소개하는 진열장 맞은편에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주요 유적을 지도에 표시하고 그 유적에서 출토되는 빗살무늬토기를 배치함으로써 토기문화의 지역성을 관람객이 눈으로 직접 보고 느

낄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전시 도록은 이전 시기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먼저 신석기시대를 간략히 개괄하고 집터, 무덤, 조개더미 등 주요 유구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주요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전 도록 체계를 따르면서도 내용은 더욱 풍부해졌다. 신석기시대의 상한은 기원전 7000년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연대관의 변화는 오산리 유적 등에서 측정된 방사성탄소연대값을 기초로 한 것이다(국립중앙박물관 1996).

7. 용산 시기(2005~현재)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신석기시대 전시는 기존의 선사실 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신석기실에서 이루어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상설전시동 1층 남측에 자리 잡은 고고관은 기존의 전시 체계에서 벗어나 구석기시대부터 남북국시대(통일신라와 발해)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전시실이 마련되었다. 이 시기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는 각종 전시 보조 도구와 전시 관람 안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것은 그간 일방적으로 보여 주기식의 전시에서 벗어나 박물관과 관람객이 공동으로 주체가 될 수 있는 참여전시로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국립중앙박물관 2005b: 374).

신석기실에 펼쳐진 전시는 이전의 신석기시대 전시 구성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먼저 지역별 토기문화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신석기시대 생활 모습을 전시품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전시 주제도 신석기시대의 기본 생활 모습인 수렵, 어로, 농경을 중심으로 유물을 배치하였으며, 기존에 없었던 신석기시대의 장례의식과 예술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신석기시대의 주요 토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루었던 지역적 특성을 계속 언급하면서도 토기의 출현 의의 등 토기가 지닌 고고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과의 교류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시기 전시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리고 신석기시대의 상한을 제주 고산리 유적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원전 8000년 무렵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어 2011년 신석기실 전시환경 개선을 통해 동삼동 패총의 층위와 비봉리 패총의 도토리 저장 구덩이, 가덕도 유적의 무덤 등 전사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발굴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비봉리 패

총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의 배를 복원하였다. 전시 도록은 이전 전시 도록의 체계를 따르면서도 전시 주제에 맞춰 살림살이, 토기의 출현과 확산, 도구 제작 기술의 발달, 상징과 의례, 주변 지역과의 교류에 대해서 서술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05a).

이 시기 국립중앙박물관 신석기시대 전시의 가장 큰 성과는 2015년에 개최된 특별전 『신석기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라 할 수 있다. 전시 주제는 기존 신석기 실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구석기문화에서 신석기문화로의 변동 원인을 변화된 환경에서 찾고 신석기문화는 이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토기 압흔 분석, 잔존 전분 분석 등 최신 농경 관련 연구 결과를 전시에 소개하였다. 전시 도록 역시 기존의 도판 중심에서 벗어나 전시 주제에 맞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석기문화 개론서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15).

Ⅲ. 국립중앙박물관 신석기시대 전시의 변화상 고찰

1. 시대 개념

한국 고고학에서 신석기시대 개념 확립 또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구분은 1960년대 이후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일제는 우리나라 선사문화는 한사군 설치 이전까지 돌을 주로 사용하는 석기시대, 즉 신석기시대였고 후반에 들어서야 청동기와 철기 등 금속기를 일부 사용했던 금석병용문화였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류문화 발달 과정을 거치지 않은 파행적이고 정체된 문화로 보았다. 그러나 1955년 금탄리 유적 발굴 조사 이후 신석기시대 문화층과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층위적으로 구분되고, 그 외에 수많은 선사시대 유적이 발굴 조사됨에 따라 기존 석기시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전시에 반영하였다. 경복궁 1기(1945~1954)에서 덕수궁 시기(1955~1972)까지는 기존의 금석병용문화라는 석기시대의 개념으로 전시했다면 경복궁 2기(1972~1986)부터는 우리나라 선사시대를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로 구분하여 전시하기 시작하였다.⁹⁾ 그러나 덕수궁 시기에 이미 선사시대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1964년에 발간된 영문 도록(초판)에서는 우리나라 선사

9) 구석기시대 전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1980년 이후 반영되었다.

시대를 신석기시대로 인식하였으나, 1968년 발간된 도록(제2판) 이후부터는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한 집단을 순수 신석기시대 사람들(pure neolithic people)로, 민무늬토기를 사용한 사람들은 일부 금속기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표 1).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록에 수록된 유물 설명의 출토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유물의 시기가 ‘Neolithic Age’(초판)→‘Early metal period’(제2판)→‘Bronze Age’(제3판)로 바뀐 것으로 보아 덕수궁 시기 후반부터는 전시실 내 진열품의 시기에 대해서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표 2).

표 1. 국립중앙박물관 발행 도록 수록 내용 변화¹⁰⁾

[1964년 판]

Three different kinds of prehistoric pottery have been found in Korea. The first type is the comb-marked pottery which is thought by some scholars to be related to the potteries of same name found in Scandinavia, by the Volga, in Finland and in Siberia. This type has a round base decorated with parallel wavy lines. Such pottery contained quartz or mica and is found on sites along rivers or on the sea coast alongside fishing utensils made of bone and horn, indicating that it was made by people who were primarily fishermen. The second is a type of coarse, thick-walled undecorated pottery with a flat base, fired at a slightly lower temperature than the above and coloured red and brown. It has been found at inland sites, in hills and valleys, accompanied by abundant stone implements used in agriculture. The last, neolithic, type of pottery is a polished, red, thin-walled type which may be related to the so-called Chinese painted pottery of Honan and Kansu provinces.

.....

It is probable that the neolithic period ended in Korea sometime during the 3rd or 4th century B.C., though the northeastern part of Korea may have retained neolithic culture even after the 1st century A.D.

[1968년 판]

Three different kinds of prehistoric pottery have been found in Korea. The first type is the comb-marked pottery which is thought by some scholars to be related to the potteries of same name found in Scandinavia, by the Volga, in Finland and in Siberia. This type has a round base decorated with parallel wavy lines. Such pottery contained quartz or mica and is found on sites along rivers or on the sea coast alongside fishing utensils made of bone and horn, indicating that it was made by **pure neolithic** people who were primarily fishermen. The second is a type of coarse, thick-walled undecorated pottery with a flat base, fired at a slightly lower temperature than the above and coloured red and brown. It has been found at inland sites, in hills and valleys, accompanied by abundant stone implements used in agriculture. **The people of this pottery seem to have used already some metal tools. The last type of pottery** is a polished, red,

10) 1964년 판 도록에서부터 1972년 판 도록까지 수록된 선사문화 개설로, 전판에서 수정된 내용은 한눈에 비교 가능하도록 굵게 처리하였다.

thin-walled type which may be **regarded, however, as a kind of pottery belonging still to the family of the second, undecorated pottery and does not form an independent culture group.**

.....
It is at the present stage of knowledge difficult to say anything definite about the prehistoric period of Korea. It is probable, **at any rate**, that the **prehistoric** period ended in Korea sometime during the 3rd or 4th century B.C., though the northeastern part of Korea may have retained neolithic culture even after the 1st century A.D.

[1970년 판]

Three different kinds of prehistoric pottery have been found in Korea. The first type is the comb-marked pottery which is thought by some scholars to be related to the potteries of same name found **in Eurasian steppe**. This type has a round base decorated with parallel wavy lines **and dots**. The pottery is found on sites along rivers or on the sea coast alongside fishing utensils made of bone and horn, indicating that it was made by pure neolithic people who were primarily fishermen. The second is a type of coarse, undecorated pottery with a flat base. The pottery is found at inland sites, in hills and valleys, accompanied by stone implements used in agriculture. The people of this pottery seem to have used already some metal tools. The last type of pottery is a **burnished, red, thin-walled type which is apparently derived from a Manchurian proto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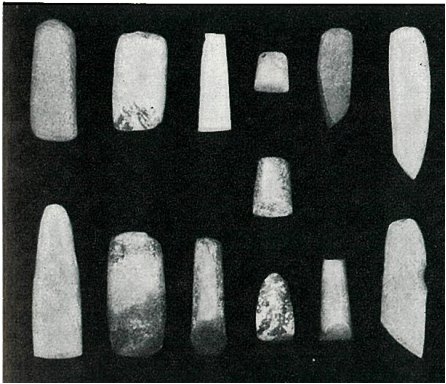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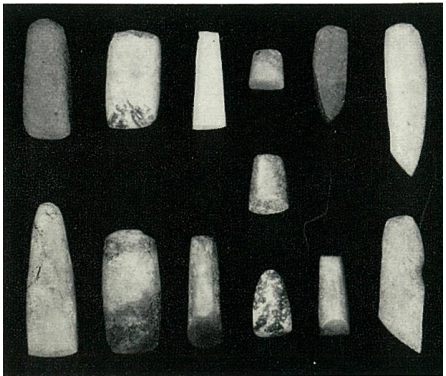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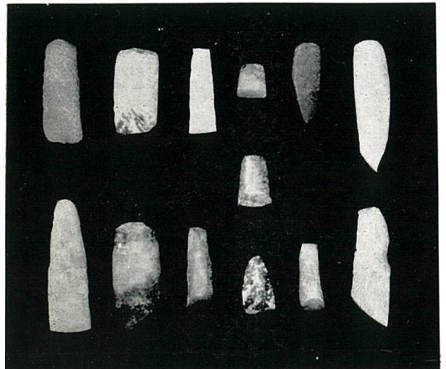
.....
It is, at the present stage of knowledge, difficult to say anything definite about the prehistoric period of Korea. It is probable, at any rate, that the prehistoric period ended in Korea sometime during the 3rd or 4th century B.C., though the northeastern part of Korea may have retained neolithic culture even after the 1st century A.D.

[1972년 판]

Three different kinds of prehistoric pottery have been found in Korea. The first type is the comb-marked pottery which is thought by some scholars to be related to the potteries of same name found in Eurasian steppe. This type has a round base decorated with parallel wavy lines and dots. The pottery is found on sites along rivers or on the sea coast **together with bone and stone implements, indicating that it was made by pure neolithic people who were primarily fishermen.** The second is a type of coarse, undecorated pottery with a flat base. The pottery is found at inland sites, in hills and valleys, accompanied by stone implements used in agriculture. The people of this pottery seem to have used already some metal tools. The last type of pottery is a burnished, red, thin-walled type which is apparently derived from a Manchurian prototype.

.....
It is, at the present stage of knowledge, difficult to say anything definite about the prehistoric period of Korea. It is probable, at any rate, that the prehistoric period ended in Korea sometime during the 3rd or 4th century B.C., though the northeastern part of Korea may have retained neolithic culture even after the 1st century A.D.

표 2. 국립중앙박물관 발행 도록 수록 전시품 출토 시기 변화

1964년 판	<p>4. PLAIN COARSE POTTERY H. 38.5cm; D. 21cm Neolithic Age</p> 	<p>7. POLISHED STONE AXES Right above, L. 16.6cm Neolithic Age</p> 
1968년 판	 <p>5. Plain coarse pottery. H. 38.5cm. D. 21 cm. Early metal period.</p>	<p>6. Polished stone axes. Right above, L. 16.6cm. Early metal period.</p> 
1970년 판	 <p>5. Plain coarse pottery. H. 38.5cm. D. 21 cm. Bronze Age.</p>	<p>6. Polished stone axes. Right above, L. 16.6cm. Bronze Age.</p> 

신석기시대 연대관에서도 변화가 있다. 개시 연대의 경우 경북궁 2기(1972~1986)까지는 기원전 3000년 무렵으로 보았으나, 경북궁 3기(1986~1996)에는 기원전 5000년, 경북궁 4기(1996~2004)에는 기원전 7000년, 용산 시기(2005~현재)에는 기원전 8000년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개시 연대의 조정은 방사성탄소연대값을 적극 활용한 학계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신석기시대 종말 연대에서도 조정이 있었다. 경북궁 2기(1972~1986)까지는 신석기시대의 종말을 기원전 4~3세기로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 선사시대를 신석기시대로 보고 중국으로부터 철기문화가 확산되기 이전인 기원전 4~3세기에 석기시대가 끝났다고 보아왔던 시각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경북궁 3기(1986~1996)가 되면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분기점을 기원전 1000년 무렵으로 설정하였다. 이 역시 당시 학계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시대명과 연대 표기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덕수궁 시기(1955~1972) 후반부터는 최소한 일제 강점기의 금석병용기설에 입각한 선사시대 개념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신석기시대의 개념이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시실 명칭과 전개 방식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용산 시기(2005~현재) 이전 시기의 국립중앙박물관 선사시대 전시가 금석병용기설에서 벗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덕수궁 시기(1955~1972)의 고고 영역 전시실 구성은 선사시대 유물-삼국시대 유물-고신라시대 유물-통일신라시대 유물 순으로 되어 있었다. 경북궁 2기(1972~1986)의 경우 선사실(구석기시대~초기철기시대)-삼국실(고구려·백제)-삼국실(신라)-통일신라실 순으로, 경북궁 3기(1986~1996)에는 선사실(구석기시대~초기철기시대)-원삼국실-고구려실-백제실-가야실-신라실 순으로 구성되었다. 경북궁 4기(1996~2004)에는 선사실(구석기시대~초기철기시대)-원삼국실-고구려실-백제실-가야실-신라실-통일신라실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선사시대 관련 전시실이 구석기실, 신석기실, 청동기실, 초기철기실로 구분된 것은 용산 시기(2005~현재)에 들어와서부터이다. 물론 전시품의 양적, 질적 차이 등으로 인해 선사시대 전시실을 넓게 배정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형성된 선사시대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는 있다.

2. 전시 주제 및 구성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유물은 토기이다.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토기는 강한 지역

성을 띠고 있다. 신석기시대 토기 연구는 바로 지역적 특색을 찾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석기시대 토기의 지역을 구분하는 전시는 이미 경복궁 1기(1945~1954)부터 시작되었다. 1947년 수정전에 선사시대 유물을 진열할 때부터 선사시대 토기를 각 도별로 비교 전시하였다. 이처럼 신석기시대 토기의 지역성을 비교하는 전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토기의 지역 구분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덕수궁 시기(1955~1972)까지는 남해안을 포함한 서해안식 토기와 동북해안 토기를 구분하여 전시하다가 경복궁 2기(1972~1986)부터 경복궁 4기(1996~2004)에는 동북지방, 중부지방 및 서부지방, 남해안지방 등 3개의 지역군으로 나누어 전시하였다. 용산으로 이전 초기에는 신석기시대 토기를 중서부지방, 남부지방, 동북지방, 서북지방 등 4개의 지역군으로 나누었다가, 2011년 전시환경 개선 이후 서북지역, 동북지역, 중서부지역, 중동부지역, 남부내륙지역, 남해안지역으로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¹¹⁾

용산 시기(2005~현재) 이전까지는 주로 토기의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여 유물을 나열하는 전시였다면, 용산으로 이전 개관한 후부터는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초점을 맞춰 전시하였다. 물론 경복궁 3기(1986~1996)의 신석기시대 사람들 모습에 초점을 맞춰 전시하였다. 물론 경복궁 4기(1996~2004)의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고는 하지만, 전시품은 기본적으로 지역적 구분을 바탕으로 한 출토 유적별 일괄 유물이었다. 그 결과 토기를 제외한 유물에서는 지역 간 차이를 관람객이 눈으로 직접 유추하고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용산 시기(2005~현재)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신석기시대 유물의 나열식 전시에서 벗어나 신석기시대 도구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당시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영상패널,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전시품 진열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숫돌 위에 간돌도끼를 올려놓는다가, 갈판 위에 도토리를 올려놓아 도구의 용도를 관람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용산 시기(2005~현재) 이전까지는 다루지 않았던 신석기시대의 무덤¹²⁾, 예술과 상징, 주변 지역과의 교류 등의 주제도 함께 제시하여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모습 전반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

11) 다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에는 서북지방 토기가 없는 관계로 전시 패널을 이용해 설명하였다.

12) 경복궁 4기(1996~2004)에 올린 후포리 유적 출토품이 전시되기는 하였으나, 신석기시대 무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이러한 전시상의 변화에는 이전의 토기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신석기시대의 생계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확대된 학계의 연구 경향도 있지만, 『한국생활사박물관』(사계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인들이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석기시대 전시는 학계의 연구 결과와 일반 대중의 관심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1947년 경복궁 수정전에 처음 대중에게 선보인 신석기시대 유물들이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전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석기시대 전시는 학계의 연구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전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는 일제가 구축한 금석병용기설을 극복하고 신석기시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 이후 학계의 연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신석기시대의 시작과 끝을 기원전 80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로 조정하였다. 전시 주제 및 구성에 있어서도 토기 중심의 지역별 비교 전시에서 벗어나 점차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초점을 맞춰 나갔다.

그렇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석기시대 전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지금까지 전시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식 전달이 주된 목적이었다. 즉 당대 학계의 연구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물론 신석기시대 전시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는 박물관은 공급자, 관람객은 수요자라는 입장에서 생산되고 소비되었다. 그러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된 일반 대중은 더 이상 박물관이 제공하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데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대중고고학이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고고학은 전통적인 개념의 고고학 영역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서 문화유산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고, 공동체의 문화나 환경 인식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넓히는 확장된 고고학 분야이다(배기동 2018: 23). 다시 말해서 대중고고학은 일방적 지식의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전문가와 대중이 서로 소통을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을 쌓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박물관의 선사고고학 분야 전시도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대중고고학적 시각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박물관에서의 대중고고학으로 교육과 체험을 생각한다(이화중 2018; 한수 2018). 그러나 고고학 조사를 통해 획득된 유물이 대중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장소는 박물관 전시실이기 때문에, 박물관 전시실은 고고학과 대중의 최접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고유물을 어떻게 전시하고 활용하는가는 대중고고학에서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이한용·김소영 2018).

여기서는 대중고고학적 시각에서 신석기시대 전시를 포함해서 고고학 전시가 박물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지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관람객이 전시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마케팅에서 말하는 ‘니즈(needs)’ 분석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신석기시대 전시가 토기의 지역적 특색을 강조하는 것에서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복원하는 것으로 점차 바뀐 것은 학계의 연구 성과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신석기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궁금해하는 일반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가 기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때 이미 서점가에는 『한국생활사박물관』과 같은 도서가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다. 즉 단순히 유물의 나열이 아니라 그 유물들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춘 서적이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대중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따라서 전시 기획자는 자신의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대중이 전시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전시 중이라도 관람객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람객(대중)과의 소통이야말로 전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이한용·김소영 2018).

다음으로는 박물관 전시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박물관 전시는 유물 나열식이라는 비판을 자주 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동안 모형, 영상,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전시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전시에 담으려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매체가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 현실감이 떨어진 박제화된 느낌을 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근 발달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이 융합된 첨단 전시기법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을 가

지고 대중이 궁금해 하는 도구 제작 및 사용 방법 등을 담은 실험고고학적 내용이나, 기존의 유적들을 가상현실로 재현하여 전시된 유물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관람객 스스로가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첨단 기술 도입에는 많은 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전시를 준비해야 하는 기획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고, 또한 대중과 함께 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전시 예산에서 첨단 기술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시기획자의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야 한다.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전시 기획자가 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시 기획자는 이러한 첨단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사례 조사를 해야 하고, 기술 개발자에게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박물관에서의 대중고고학적 전시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 보았다. 위에 언급한 방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위에 열거한 방법 외에도 더 많은 방법이 있으며, 새롭게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시 기획자의 자세이다. 고고학과 고고학 자료가 대중에 괴리되어 있다면, 고고학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고고학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고고학의 저변 확대를 모색한다면, 고고학 자료가 일반 대중과 직접 만나는 박물관이 변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애호가인 대중에게 고고학의 본질적인 지적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박물관인의 의무이다.

[부기]

본 글을 작성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장상훈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역대 전시 도록뿐만 아니라 1947년에 발행된 『국립박물관 본관안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본 글을 쓸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과 이영덕 호남문화재연구원장은 대중고고학 관련 자료 제공 및 조언을 해주었다. 홍설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연구원은 자료를 정리해 주었다. 이분들에게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비록 필자의 학문과 박물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을 제시해주신故 한영희 고고부장님께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국립박물관, 1947, 『관보』 제1호, p.1.
_____, 1947, 『국립박물관 본관안내』.
_____, 1964, 『GUIDE BOOK』.
_____, 1968, 『National Museum of Korea』.
_____, 1970,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립중앙박물관, 1972, 『진열품도록』.
_____, 1978, 『국립중앙박물관』.
_____, 1986, 『국립중앙박물관』.
_____, 1996, 『국립중앙박물관』.
_____, 2005a, 『국립중앙박물관』.
_____, 2005b, 『국립중앙박물관 60년』.
_____, 2015, 『신석기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김용간, 1964, 『금탄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 사회과학원출판사.
김원룡, 1964, 「한국 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 문화사 대계』 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배기동, 2018, 「한국 대중고고학의 개념 정립과 방향」, 『한국대중고고학개론』, 한국대중고고학회
편, 주류성.
아리미스 교이치, 1996, 「1945~46년에 있었던 나의 경험담」, 『한국고고학보』 34, 한국고고학회.
이한용·김소영, 2018, 「박물관전시와 대중고고학: 전국선사박물관 특별전 사례를 중심으로」,
『대중과 고고학』 제2회 한국대중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이화중, 2018, 「대중고고학의 발전과 한국의 대중고고학」, 『한국대중고고학개론』, 한국대중고
고학회 편, 주류성.
한 수, 2018, 「박물관 어린이 교육으로서의 고고학 체험」, 『한국대중고고학개론』, 한국대중
고고학회 편, 주류성.
한홍수, 1936, 「조선석기문화개설」, 『진단학보』 4, 진단학회.

【Abstract】

Examination of the Changing Nature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Neolithic Exhibitions

Yang Songhyok*

Since it was first established in 1945,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moved six times. Although this frequent change of location has resulted in numerous problems in terms of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it has also presented opportunities to change the themes and compositions of the Museum's exhibitions.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is changing nature of exhibitions, it may be possible to trace academic accomplishments and perceptions towards material culture.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ing nature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exhibitions on the Neolithic Period in order approach how perceptions of the Neolithic Period, as well as the way in which associated academic achievements were presented to the public, changed over time.

The Neolithic exhibi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can be judged to have evolved in association with developments in research undertaken by the academic community. Up until the 1970s, the main focus had been to overcome the concept of the 'Chalcolithic Period', which had been proposed by the Japanes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and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Neolithic Period'. Subsequent developments involved defining the beginning and end dates of the Neolithic Period to 8000 BCE and 1000 BCE, re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new research findings. Changes in theme and composition are represented by the replacement of pottery-focused exhibitions presenting regional comparisons with exhibitions exploring Neolithic ways of life.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have access to various kinds of data and are now capable of critically approaching exhibitions that present academic research findings to a wider audience. The author argues for the need to acknowledge such a trend and focus on 'public archaeology'. The museum, where the public can directly observe artifacts acquired through archaeological excavations, can be regarded as the key contact point between archaeology and the public. Change has to take place at the museum, where the general public meets archaeological material, in order for archaeological to become a sustainable discipline with a broad basis. In order to do so, attempts must be made to analyze the public's needs in relation to museum exhibitions, and to adopt new cutting-edge methods of display which conver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culture technology.

* National Museum of Korea

Key words : Neolithic Period exhibitions, Chalcolithic Period theory, Public archaeology,
culture technology